

金北日報

전북도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선포...산·학·연·관 똘똘 뭉쳤다

윤문민주 | ① 입력 2023-03-14 17:54 | ② 수정 2023-03-14 17:54

도·새만금청·6개 대학·기업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 다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동 대응



전북 이차전지 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이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현욱 기자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도내 6개 대학 총장,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KIST 전북분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K 넥실리스, 정석케미칼, 성일하이텍, 비나텍, 천보 BLS, 에너이버 배터리솔루션, 이엔플러스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대 과제를 밝히고 앞으로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R&D 혁신 허브 구축 △글로벌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산·학·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R&D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대 등 6개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주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